

“민심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성엽 위원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현행 10%→50%로 조정 등

지방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을 일치시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광역·기초의회는 의원정수의 10%를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

다. 그러나 비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 수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거대 정당에 의한 의석복과점 또한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 의회와 구·시·군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10%에서 50%로 조정 ▲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를 3인 또는 5인으로 조정 ▲정당득

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작동하게 된다. 유성엽 위원장은 “승자독식 구도의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며, “정치개혁 달성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

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안 논의과정에서 개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법안의 발의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김종희, 박준영, 박주현, 박지원, 오세정, 이동섭, 이상돈, 장정숙, 조배숙, 최경환 등 총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진성 기자

최은희, 대한태권도협회 감사패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그간 전북도 태권도발전에 기여한 최은희 의원의 공로가 인정돼 결정됐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무주에서 개최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와 개최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태권도가 전북도를 상징하는 대표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도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감사패 수상에 대해 “앞으로 전북도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태권도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무주태권도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전북도 태권도가 스포츠 산업으로 새로 나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최은희 의원

이학수, 전북도 최우수 광역의원

전북도의회 이학수 위원장(정읍2·농산업경제위원회)이 최근 호남 유권자연합이 뽑은 2017 전라북도 최우수 광역의회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학수 의원

정치개혁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호남유권자연합은 전북 광역의원 중에서 올해 한 해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이학수 위원장을 전라북도 최우수 광역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의회 제8대, 제10대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경제·농정분야의 도정 시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뿐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역발전

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제10대 후반기에는 농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각종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며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2015년에는 제10대 전북도의회 27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북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학수 위원장은 “도민을 대표하는 일꾼인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받게 돼 매우 감사하면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발로 뛰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군 주요지휘관과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정동영,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연타’

한국유권자총연맹·국민의당에서... 김광수, 2년 연속 ‘국민의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 선정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국민의당과 사단법인 유권자총연맹이 각각 선정한 ‘2017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은 8일 오후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최하는 제10회 최우수, 우수 의정활동 대상 시상식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2017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상과 ‘2017년 국민의당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상을 받았다. 정동영 의원은 2017 국정감사 기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집을 보고 사는 후분양제 도입과 건설노동자에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임금체불



김광수 의원

방지하기 위한 발주처 임금체불예

전면 확대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정주시 갑)도 성실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8일 국민의당이 선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과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국민과 언론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민의당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 한눈에 반하다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